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 전략

Operating Strategies for Family-Cooperative Activities (Pumasi) and a Cooperative
Child Care Place as a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Project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ersity
Professor Cha, Sung-L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Pumasi and Cooperative Child Care Sharing have had positive results among participants and show possibilities of spreading out to the community in general. However, performance was not proved where it is clarified, and the experience of 23 loc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have that ran the demonstration project were unable to be collected. It is the point of time when the initial backing up is important but the centers do not have the systematic support.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s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involving Pumasi participants and person in charge.

The operation strategies by the stage of the project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beginning stage, the person in charge establishes the target and vision of the project. Second, when comprising the Pumasi team,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i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eam organization subjects. Thir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turn-off time and provide many programs so that the various populations can participate. Fourth, in the advertising step, word of mouth and individual contact needs to be utilized. Fifth, in a medium or small city or an urban-rural complex area, the person in charge should support the participants' Pumasi activities. Sixth, various programs such as a passive and active parent education program and Pumasi education

* 주저자 · 교신저자: 차성란(slcha@dju.kr)

program for the leader needs to be provided for the activation of Pumasi activities. Lastly, a cooperative child care sharing location needs to be constructed by the duality system of the base space and outer space. In this location, the inside play space for the children is essential.

Key Words : 가족품앗이(family-cooperative activities, pumasi),
공동육아(cooperative child care sharing),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 서론

2010년 5개 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지금까지의 사업실시 결과 가족품앗이 활동 참여자들이나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역공동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이 감지되고 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에의 참여는 기존의 사교육 중심의 경쟁적, 성과중심적,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부모들이 뚜렷한 자녀교육 철학을 정립,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업적 교육방식이 기존의 사교육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지나친 교육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 청년층 실업, 노년층의 노후설계 등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주도적 문제해결방식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적 방식에 의한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차성란, 2011). 하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이 안정적으로 체계화되기까지는 사업 초기 시작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동기화시키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차성란, 2010). 많은 사례에서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가족품앗이 사업의 경우는 그 역할을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적 성격의 사업에서 특히 초기 단계에 지원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운동을 촉발하고, 체계화하는 단계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있는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단계별로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지원과 자원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차성란, 2010).

현재 센터 사업은 가족품앗이라고는 하지만 육아품앗이 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의 세 중심 요소인 거주, 여가, 경제에서 가족돌봄은 기본적 거주환경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가족들이 일-가정 양립, 민주적 가족관계 등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가족품앗이 사업은 가족친화마을의 성공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품앗이, 공동육아품앗이를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작동 체계를 센터가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성과가 실증적으로 밝혀진 상태가 아니며,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23개 지역 센터의 경험도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역에서 품앗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결집해내는 기관의 역할이 아직 부족하고, 비공식적 품앗이 조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해, 초기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담당자들은 이제 1년이 채 못되는 사업을 경험한 상태로 사업 홍보에서부터, 가족품앗이 팀 구성, 담당자보다 나이 많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품앗이 회원관리, 육아나눔터 프로그램 기획, 외부 육아나눔터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운영모델이 없으며, 구체적인 운영매뉴얼이나 품앗이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의 역량을 키워줄 어떤 프로그램도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23개 지역센터의 지난 1년간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사업운영 상의 어려움과 요구사항들을 파악해냄으로써 가족품앗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센터의 사업담당자 및 가족품앗이 참여자들이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 실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업무역량,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업의 전국 확산을 좀 더 단기적,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자녀돌봄을 포함하여 정부의 가족친화정책의 실천적 모델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품앗이

1) 가족품앗이의 개념

품앗이는 ‘품’과 ‘앗이’의 두 개념이 합해져 완성된 단어이다. 품은 어떤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즉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앗이’는 ‘앗다’의 명사형으로서 앓다는 ‘일을 해주고, 다시 일로

써 갚게 하다’(국어연구원)라는 주고받음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인간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역시 전통사회의 협동노동방식이었던 두레나 고지, 머슴의 경우가 계산에 의한 주고받음이었던 데 비해 품앗이는 그렇지 않았다. 품앗이는 노동력 교환 대상에서 사람과 농우(農牛), 남성과 여성, 장년과 소년의 품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지 않는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른다(윤수중, 2010). 두레나 고지가 경제적 교환에 가깝다면 품앗이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교환에 비출 수 있다. 교환의 이면에 누구나 똑같이 귀중하다는 ‘존중’과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품앗이 사업은 2008년 육아품앗이 시범사업이 시초이다. 육아품앗이와 가족품앗이 둘을 견주어보면 육아품앗이는 품앗이의 교환대상인 품의 종류가 자녀의 양육으로 한정된다. 이에 비해 가족품앗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품을 교환하는 주체가 가족원이라는 점에서 가족원에 의한 품 교환이라는 의미로 가족품앗이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통해 가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정경영의 관점에서의 개념 정의이다. 가정은 자녀양육을 포함하여 그 밖의 모든 다양한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들은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신체적, 정서적 돌봄과 정보, 다양한 상품 등의 자원을 관리한다. 가족품앗이는 이러한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주고 받는 호혜적 활동’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가족품앗이는 가족친화마을이라는 궁극적 지향을 갖고 있으므로 품을 주고 받는 대상으로 특히 지역사회 이웃주민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품앗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웃 가족원들과의 유대를 통해 가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은 ‘품앗이 참여자’로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만약 참여자 대신 팀원이나 구성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구성원은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국립국어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품앗이는 단지 소극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있는 참가,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고 보면, 품앗이 구성원은 활동의 적극성에서 부족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 들어 관계함’(국립국어원)의 의미로 ‘끼어 들어 관계’하는 것은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품앗이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일컫는 단어로서 ‘품앗이 참가자’나 ‘품앗이 회원’보다는 ‘품앗이 참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가족품앗이의 대상

품앗이의 대상은 물질적, 비물질적인 유형, 모두가 가능하다. 음식, 옷, 기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이 물질적 품앗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김주희, 1991). 비물질적인 것으로는 호의, 관심, 위로, 동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내가 받은 위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내게 해준 동조는 받은 은혜의 가치를 즉각적이든 나중에든 상대방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Mauss, 1990)가 된다. 품앗이를 호혜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원교환이라고 보면, 교환의 대상은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상담지원(윤현숙, 2003) 또는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김영주, 2009)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품의 교환이라는 가족품앗이를 가정 자원경영의 틀에 적용시켜 보면, 가족돌봄에 해당되는 용역을 비롯하여, 재화, 금전, 정서, 정보 등으로 품 교환 대상이 되는 자원을 구분해 볼 수 있다.

2.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 나눔 그리고 터의 세 단어의 합성어이다. 터는 비어있는 땅 또는 활동의 토대나 일이 이루어지는 밑바탕(국립국어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건강강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 뜻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의 터는 품앗이 참가자들이 계획하거나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공동육아나눔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부모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 주민주도적인 공동육아나눔의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OO 센터’의 center 는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 ‘사회사업 등의 종합시설’(두산동아 영어사전) 등을 의미한다.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의미를 ‘공동육아나눔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공동육아나눔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적 시설’로서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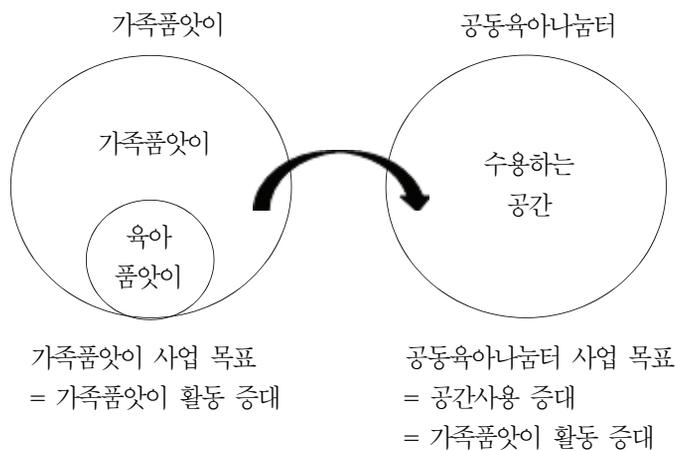
나눔의 본래 의미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국립국어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제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고르게 나누어 갖는다는 형평성, 그에 따른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성과 같은 사회정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술잔을 나누다’에서처럼 무엇인가를 함께 먹거나 마시는 즉, 활동의 공유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눔에는 품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품앗이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어머니들이 육아공동체를 만들어 육아를 공유하는 것을 ‘품앗이공동육아’로 정의(김정희, 2000)한다면, 공동육아나눔은

공동육아품앗이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육아는 육아방식을 가정육아와 사회육아로 구분할 때 사회육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개별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경우를 가정육아라 보면, 사회육아로서의 공동육아는 부모,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정병호, 1994). 결국 공동육아나눔이란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이웃, 지역사회, 국가와 공유하는 사회적 육아방식에 동의하며, 그 같은 방식의 육아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육아품을 서로 주고받는 협력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루어지는 육아품앗이(육아품앗이를 포함한 가족품앗이)에는 내 자녀의 부모이자 이웃과 지역사회의 부모로서 책임과 권리를 고루 나누어 함께 하는 공동체적 육아방식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다.

3.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를 두 개의 별도 사업으로 간주하여,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병렬시키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방식의 육아나눔, 즉 육아품앗이는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재화, 금전, 정보, 정서 자원 중 서비스 자원인 육아품의 나눔이다. 즉 육아품앗이는 가족품앗이의 일부분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품앗이를 포함하여 가족품앗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가족품앗이 사업의 목적이 가족품앗이 활동의 양적 증대라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목적은 공간사용의 증대일 것이다. 이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품앗이 활동이 증대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개념적 중복은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두 사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그림 1〉 가족품앗이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두 사업의 경계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족품앗이 활동 증대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사용의 증대를 두개의 별도 사업 목표로 간주한다고 보면, 두 사업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가족친화환경조성에 있다. 자녀돌봄을 포함한 가족돌봄, 가정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품을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가족원들이 살기좋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이 궁극적 목표이다.

4.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태 및 사업단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된 육아휴게소를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천안시와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과 함께 육아휴게소를 시범 운영하였다. 2008년도에 ‘가족품앗이’라는 사업명으로 10개 센터에서 운영되었으며, 2010년도 천안시센터에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모형으로 시범운영되었다. 2011년도부터는 23개 지역센터로 확대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2009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 실적보고에 의하면 이용자녀 연령대는 2-5세 미만이 62.3%를 차지하며, 이용시간은 1시간인 경우가 55.8%였다. 이용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아 58.7%, 40대는 26.2%였고, 부모의 취업상태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89.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사업을 통해 비취업부모들의 자녀양육지원 모형이 개발된 것으로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공동육아나눔터 홍보 및 이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주로 학습품앗이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 확대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2011년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경우, 기업후원으로 공간리모델링 및 장난감 비치 등이 가능해졌지만, 사업의 정착이라는 점에서 보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보면, 예산, 인력, 장소, 홍보 등에 대한 지자체와 관계자의 지원 요청, 품앗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정착의 어려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사례집, 매뉴얼 부재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 하나인 등하교동행품앗이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및 동행인 발굴과 모집이 잘 되지 않아(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1) 사업운영조차 힘든 상태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 단계는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는 운영계획 및 홍보, 2단계 운영기관 선정, 3단계 시설조성 전 사전활동, 4단계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5단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단계 운영평가 및 피드백으로 제시되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이는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구분한 사업 단계여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품앗이 사업운영의 단계로는 적합치 않은 면이 있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이후 품앗이 및 나눔터로 지칭)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 전략들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첫째, 품앗이 및 나눔터 참여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실태를 분석

하여, 사업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한다. 둘째,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품앗이 및 나눔터 사업의 진행 단계별 운영 전략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구조화된 설문지 중 개방형 설문항의 기술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품앗이 및 나눔터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대상 개방형 설문조사

설문지 자료수집은 품앗이 참여자와 사업담당자 설문지를 2011년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센터에 우편으로 발송,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문항의 설문 조사는 23개 지역센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0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품앗이 참여자는 23개의 각 센터별로 품앗이 구성원 10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지 23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228부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품앗이 참여자 대상 설문지의 경우,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바라는 내용이 있는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¹⁾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자녀수 및 연령, 남편의 직업, 가정유형, 거주기간, 월평균 가계소득을 조사하였다. 품앗이 참여자 206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 문항의 응답 내용 출처는 “(참여자 설문지)”로 표시된다.

사업담당자용 설문지는 역시 개방형으로 전체 품앗이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품앗이 팀 구성 기준 및 방식, 오리엔테이션 내용, 리더양성프로그램 내용, 품앗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 프로그램 내용, 내년도(2012년) 프로그램 계획, 품앗이 및 나눔터 사업에 대한 목표나 비전, 가족폭악이 사업 운영시 어려움, 담당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한 문항²⁾ 등을 포함하였다. 담당자의 기본적 사항으로 소속팀명, 근무경력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사업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 문항의 응답 내용 출처는 “(담당자 설문지)”로 표시된다.

2) 가족폭악이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대상 면접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분석은 23개 지역센터 중 해당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역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5개 센터를 선정, 사업담당자 5명과 현재 활동 중인 품앗이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심층면접하였다. 품앗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가족폭악이 참여하게 된 통로, 동기, 참여 이후 달라진 점, 품앗이 팀 구성 및 활동, 아버지의 가족폭악이 활동 참여, 가족폭악이 사업관련 요구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가족폭악이 팀 구성 방식, 효과적이라 여겨졌던 프로그램이나 사업전략, 사업

1) 품앗이 참여자 대상의 설문 문항은 차성란(2011)의 “가족폭악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차성란(2011)의 연구에는 가족폭악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실태, 가족폭악이팀 구성 및 활동시 어려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요구,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가족폭악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일반적 특성 6개 영역의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가족폭악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영역 중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정부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한개 문항의 내용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사업담당자 대상의 설문 문항 역시 차성란(2011) 연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운영에서의 어려움 및 요구 등이었다. 심층면접의 사례 내용은 각각 "(품앗이 참여자 A~R)", "(담당자 A ~ E)" 로 표시된다.

심층면접 대상자 중 품앗이 사업담당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5개 센터의 품앗이 및 나눔터 사업 담당자의 소속팀은 가족친화팀, 아이돌보미팀, 가족문화팀 등이었으며, 사업을 담당한 기간은 3개월에서부터 7개월까지였다. 본 사업을 담당하기 이전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3년에서 6년 사이였으며, 2명은 관련경력이 전무한 경우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심층면접 대상자 중 품앗이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품앗이 참여자 총 18명 중 기혼여성인 17명이었으며, 1명은 면접대상자의 남편이 함께 참여하였다.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15명이었으며, 2명은 시간제 비정규직이었다.

2.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태

2011년 현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3개 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전반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가족품앗이 활동 공간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센터내에 위치

<표 1> 면담 대상 가족품앗이 참여자

참여자	연령	직업	배우자 직업	자녀수 및 연령
품앗이 참여자 A	34	전업주부	회사원	4세, 임신중
품앗이 참여자 B	40	전업주부(결혼전 학원강사)	회사원	4세
품앗이 참여자 C	37	전업주부	학생	6세, 4세
품앗이 참여자 D	36	전업주부	회사원	5세, 2세
품앗이 참여자 E	41	주중 16-21시까지 과외교사	회사원	13세
아버지 참여자 F	43	품앗이참여자 E 남편	-	-
품앗이 참여자 G	43	09-15시까지 아르바이트	회사원	15세, 13세
품앗이 참여자 H	37	전업주부	회사원	6세
품앗이 참여자 I	39	전업주부	연구원	6세
품앗이 참여자 J	37	전업주부	회사원	6세
품앗이 참여자 K	37	전업주부	회사원	8세, 6세
품앗이 참여자 L	42	전업주부 영어 교육품 제공	회사원	12세, 11세
품앗이 참여자 M	32	전업주부	공무원	4세
품앗이 참여자 N	34	전업주부	회사원	5세
품앗이 참여자 O	34	전업주부	회사원	4세
품앗이 참여자 P	41	전업주부	회사원	6세, 3세
품앗이 참여자 Q	42	전업주부	회사원	6세, 4세
품앗이 참여자 R	38	전업주부	회사원	8세

〈표 2〉 면담 대상 가족품앗이 사업 담당자

담당자	소속팀	사업기간	관련기관 근무경력
담당자 A	가족친화팀	7개월	-여성문화회관 2년 -요양원 1년
담당자 B	아이돌보미팀내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담당	5개월	-
담당자 C	총괄팀장	8개월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6년
담당자 D	가족문화팀 내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담당	3개월	-
담당자 E	별도팀 없음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담당	7개월	-요양원 1년 -특수보조교사 4년

한 내부형 나눔터와 지역사회내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외부형 나눔터로 구분된다. 그밖에 품앗이팀의 수, 참여가족수,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가능 시간을 제시하였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나 기준은 품앗이 참여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방형 설문자료 및 심층 면접자료를 유목화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 도출하였다. 실태 파악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되며, 첫째, 사업의 계획 및 수행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사업의 방향 및 비전, 홍보, 오리엔테이션, 가족품앗이 팀 구성 및 참여자 확대, 가족품앗이 활동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의 환경적 요소로서 가족품앗이 사업의 운영환경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의 물리적 환경이 포함될 수 있다.

1) 사업담당자의 품앗이 사업의 방향 및 비전

품앗이 사업 담당자로서 어떤 사업 방향과 비전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2년도에 계획 중인 프로그램 계획 및 사업의 목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2012년도 프로그램 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품앗이 의식 및 실천, 가족품앗이 대상 및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가족품앗이 전체 회원간 상호작

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에 의한 운영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가족품앗이 의식 및 실천에 해당되는 지역리더양성교육, 부모주도적 운영능력 강화, 가족품앗이 활동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등의 계획은 주민들이 품앗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 주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계획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족품앗이의 대상 확대를 통해 가족품앗이 활동을 다양화하려고 한다. 품앗이 대상을 초등학교, 아빠, 맞벌이, 조손가정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 육아품앗이의 가족품앗이로의 확대, 반찬품앗이 및 다양한 품강좌 등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소그룹의 양육활동 중심의 품앗이에서 센터 단위 품앗이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체 품앗이 참여자간의 품나눔이나 기타 프로그램, 간담회, 퇴사담가게 등은 소그룹의 품앗이 경계를 허물어냄으로써 적어도 센터 단위의 품앗이, 가족품앗이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방향 및 비전은 ‘자녀양육 및 비용 및 신체적, 정신적 부담의

경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경우에서부터 '가족품앗이 참여자들이 스스로 품앗이 활동을 운영해갈 수 있도록 지원기관으

로서의 역할 담당', '지역공동체 구축'과 같이 추상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담당자들은 단순히 사업의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

〈표 3〉 가족품앗이 참여 실적 및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센터명	나눔터 유형별 갯수	품앗이팀 수	실적 ³⁾ (2011년 5월 기준)	이용가능 시간
강남구	내부 1	7팀	24가정	09:00~18:00
고양시	내부 1, 외부 1	5팀	8명	주중 10:00~17:00
관악구	외부 7	5팀	25가정(54명)	10:00~18:00
광산구	내부 1	6팀	18가정 (146명)	10:00~16:00
구미시	내부 1, 외부 3	3팀	24가정(47명)	-
대전시	내부1	1팀	5가정(6명)	09:00~18:00
동작구	내부 1	4팀	34가정	07:00~22:00 (자원봉사자지원)
동해시	내부1	1팀	23명	11:00~15:30
목포시	내부 1	3팀	2가정(5명)	-
부산 광역시	외부 4	13팀	292명	나눔터 별 차이 09:00~18:00
부평구	내부 1	5팀	51명	9:30~18:00
사하구	외부 1	6팀	26가족(70명)	09:00~18:00
수성구	외부 1	6팀	24가정(96명)	10:00~18:00
시흥시	외부 2	4팀	38가정	09:00~17:00, 14:00~17:00
여주군	내부 1	4팀	23명	10:00~18:00
연기군	내부 1	4팀	19명	-
울산시	내부 1, 외부 4	9팀	160명	-
익산시	내부 1, 외부 1	4팀	9가정	09:00~18:00 토요일 13:00~16:00
전주시	내부 1	3팀	-	주중 09:00~18:00 토 10:00~12:00
제천시	내부1	4팀	14가정	-
천안시	내부 1, 외부 5	6팀	129명	10:00~17:00 나눔터 별 차이
청주시	내부 1	4팀	3가정	-
통영	내부 1	4팀	35가정	09:00~18:00

출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중간보고 및 실무자 간담회(2011년 6월 23일)을 참고로 작성

3)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 자료에 제시된 실적이 가정 또는 참여인원수로 혼용되어 있음.

〈표 4〉 2012년도 계획 프로그램 및 방향

영역	내용
가족품앗이 의식 및 실천	-지역리더양성교육 -부모주도적 운영능력 강화 -가족품앗이 활동 프로그램 매뉴얼 -지역부녀회와 연계한 마을장터
가족품앗이 대상 및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품앗이 -맛벌이와 함께 하는 가족품앗이 -초등학생 학습품앗이 -조손 프로그램 -아빠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육아품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품나눔 활동 -반찬품앗이와 가족봉사단 연계활동 -품강좌
가족품앗이 전체회원 상호작용	-가족품앗이 전체 품나눔 -간담회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품앗이 전체회원 프로그램 -되살림가게

게 살 수 있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보다 많았다.

“가족품앗이 모임이 증가해서 센터의 지원이 없이도 스스로 운영이 잘되는 자발적 모임으로 성장되길 원한다”(담당자 설문지)

“이 사회가 삭막하거나 외로운 세상이 되지 않는 것 이웃을 보며 에너지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 그렇게 느끼는 가정이 많았으면 합니다”(담당자 설문지)

“함께 해서 즐겁고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지역가족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작게는 올해의 품앗이 그룹보다 배가되는 그룹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장’을 꾸려나가고 싶음”(담당자 설문지)

2) 홍보

(1) 부모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이용한 홍보
품앗이 참여자들은 품앗이 활동내용을 담은

소식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왕래가 예상되는 병원, 약국,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품앗이 이야기를 하면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나 통로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표정을 나타냈다.

“센터에 알리미하는 것처럼 글로 남겨서 사진자료 알리미 신문, 품앗이 신문 같은 것 배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부인과 같은데 약국이랑 비치를 해주면 엄마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아과 같은데”(품앗이 참여자 M)

“센터 프로그램도 학교 홈페이지, 관평동 맘스 홀릭이나 네이버 안에 테크노 마을카페 같은 곳에 홍보하면 되요중략....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홍보하면 될텐데....” (품앗이 참여자 I)

(2) 가장 좋은 홍보는 입소문

품앗이 참여자들 스스로 사업 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홍보를 잘 한 것 입소문 때문이다. 아이들이 놀 공간도 있고 엄마들이 놀기도 좋더라 뭐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런 것 같다. 정말 입소문이 가장 무섭다.”(담당자 A)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 저렴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가져오고 해서 오게 됐다. 같은 유치원 엄마가 소개했다.”(품앗이 참여자 B)

3)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족품앗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수한 품앗이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센터에서 품앗이 참여자들을 적은 비용이지만 예산 지원을 하는 이유, 지원방식, 등을 소개하면 참여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이후 품앗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앗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가족품앗이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한다.중략... 가장 먼저 교육한다. 당연히 사업 소개를 한다. 효과가 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개학식같은 느낌....”(담당자 A)

4) 가족품앗이 팀 구성

① 마음에 맞는 팀 구성하기가 업무를 가장 시킴

사업담당자가 품앗이 팀을 구성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 및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관심, 개인적 성향, 부모의 취업여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등 참여가족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팀을 하나로 구성해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시단위 센터의 한 담당자는 품앗이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팀을 구성하려다보니 전체 업무에서 팀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량이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앗이 결성은 거주지역하고 자녀 연령을 고려한

다. 엄마의 나이는 상관이 없다. 엄마가 원하는데 한번 모이기로 했는데 못 모이고..... 업무중 50%가 넷팅 업무다. 날씨 봐서 모이자고 하고 그러다보니 자꾸 지연된다.중략.... 품앗이결성을 하기 전에 전화로 엄마들 면접을 하거나, 내방 면접을 한다. 그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담당자가 파악해서, 연결한다. 엄마들 중에는 동화하기 어려운 엄마들이 있다. 그런 엄마랑 까탈스런 엄마들을 묶어주면 잘 안된다. 엄마들을 묶는 중매역할이 힘들다. 다른 센터들은 품앗이를 결성해서 온다는데 우리는 다 개별로 신청한다. 서로 엮어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큰 일이다. 결성되고 나면 뿌듯하기는 하다.”(담당자 A)

② 사전에 구성되어 센터 등록하는 품앗이 팀은 요구가 많고 소통이 어려움.

담당자가 품앗이 참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대처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센터의 지원범위, 지원 여부 문제이다. 센터에 등록하기 전부터 이미 구성되어 있던 품앗이들은 센터의 지원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를 한다거나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고,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잘 하지 않아 활동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미 품앗이 활동을 하던 팀이 센터의 지원을 기대하고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가 그들의 끊임 없는 요구를 대처하는데 곤란함을 느끼거나 소통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담당자 B)

“묶어져있는 품앗이 그분들이 오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커트를 했어요. 지원을 할테니까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무얼 해줄 수 있는데?'(라고 물어요).”(담당자 B)

③ 참여자들 스스로 품앗이 팀 만들도록 환경 만들어주기

사업담당자의 개입을 가능한 줄이고, 품앗이 참여자들이 친밀감을 형성한 후 스스로 적합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참여자간 연계만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품앗이를 바로 묶어 드리지 않는다. 가능성을 본다. 성향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단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중략... 엄 마들끼리 맞거나 그러면 묶이거나 원하거나 하면 이분, 저분 어떠세요 하고 저는 나중에 들어갈래요 품앗이 그룹이 묶어 졌을 때도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알아가는 단계로 삼으세요. 더디 가더라도 품앗이 취지에 맞게 가는데 맞을 것 같아서, 틀에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담당자 E)

④ 참여자들의 품앗이 구성 기준-자녀연령, 자녀양육관, 부모성향

품앗이 참여자들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자녀양육관, 성향 등 다양한 가족품앗이 구성 기준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품을 구성하였다.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그 엄마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애들끼리 잘 지내야 하고 빈도수도 중요하고 성격적 부분, 육아관이 실제로 같아야죠. 엄마들을 만나보니깐, 육아관이 다르면 안 친해지더라구요. 애들까지 친하게 지내려면 육아관이 같아야하고 생각보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품앗이 참여자 A)

5) 가족품앗이 팀 참여자의 확대

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요구

영유자 자녀는 장시간 보호와 돌봄을 요구하는데 비해 초등학생 자녀는 단절적, 연계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영유아의 경우 누군가가 전적으로 돌봄을 맡아야 하기에 친정, 시댁부모, 상주도우미, 어린이집 중일반 등의 방법을 택하지만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오히려 돌봄을 해결하기가 복잡하다. 이러한 돌봄 특성은 품앗이 사업에서

방과후 돌봄요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품앗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과의 시간 맞추기가 힘들며 아이들의 의사를 맞추기가 벅차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을까요”(참여자 설문지)

“방과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참여자 설문지)

② 보육시설이용 자녀 및 맞벌이가정의 참여 요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 취업주부 자녀들은 센터의 이용가능시간에 제한되어 있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주말이나 오후시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참여자 설문지)

“직장맘이라 평일에 진행되는 부모프로그램은 전혀 참관할 수 없어 많이 안타까워요. 혹 토요일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저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어요”(참여자 설문지)

③ 남편을 품앗이에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아내들

본 조사에 의하면 가족품앗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가 세 사례 있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 중 14.1%로 나타났다. 어머니들도 남편과 자녀교육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주변의 맞벌이 엄마들이 주말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말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아빠들과 맞벌이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설문지)

“가족구성원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
아졌음. 아빠랑 통합놀이, 아빠랑 요리 강습 등”(참여
자 설문지)

④ 아버지들의 품앗이 참여시 사회경제적 지
위 특성을 고려할 필요

직업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전히
가장으로서 생계유지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 아버
지들을 품앗이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아내의 경
우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이 품앗이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 팀은 아빠들이 잘 안 움직여요 유독 아빠들끼
리 10살 넘게 차이가 나요 (아빠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잘 안 통하는게 이유죠 직업이 많이 틀리거
도 하고요 직업이 천차만별이예요 공장다니는 분 이
런 분 저런 분, 잘난척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서 조심스러운 동네이기도 해요 연구원 자영업 밑에
서부터 회사 사장님까지 말단 직원도 살고 단순 노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직도 계시고 너무 다양한 레
벨 차이가 나오 평수가 아주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
까지 있어요 공단배경도 있고요 여기가 아파트값이
저렴하잖아요 연구원들이 돈이 없잖아요 보상 받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세종시 개발하면서요 농부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뭉쳐서 사니까 소통이
잘 안되는 것도 있어요”(품앗이 참여자 L)

6)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1) 가족품앗이 활동 역량 부족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나 도농복합지
역의 품앗이 참여자들은 가족품앗이에 대한 이해
나 경험이 부족하며, 품앗이 활동의 계획수립 및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력이 부족하다 열정이 있는 부모들은 자신이
찾는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우리 더러 뭐해요? 그래
요 물어요 자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담당자 A)

“어머니들이 프로그램 진행에 부담을 느낀다. 무엇
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호소를 한다. 간담회에서
교육프로그램 계획 짜는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는 건의
가 있었다. 카페에 정보를 올려놓는데 어머니들은 집
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
렵다고 말한다.”(담당자 B)

(2) 담당자의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가족품앗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담
당자들은 품앗이참여자 가족활동, 품앗이 전 참
여자 교류 모임, 가족품앗이 활동수행능력향상(품
강좌), 모-자녀프로그램,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

〈표 5〉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영역	내용
품앗이 전체 참여자 가족 활동	-“꿈이 있는 밤” 가족축제 -아빠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아빠와 함께 하는 체 육활동 -벼룩시장
품앗이 전체 참여자 교류	-품앗이 참여자가 제공하는 교육강좌품앗이 -품앗이팀 전체 간담회 -보고회
가족품앗이 활동수행능력	-부모대상 만들기, 놀이법 교육
부모-자녀프로그램	-놀이활동, 요리활동, 영화상영, MBTI 성격유형검사, 오감발달컬트교실
홍보	-장난감 리사이클링 및 도서관만 이용자 대상 홍보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홍보

이고 있었다(<표 4>). 한 군(郡)단위 센터에서는 ‘꿈이 있는 밤’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가족품앗이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여름밤 축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축제에 참가한 품앗이 구성원들은 이를 계기로 가족품앗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음으로써 품앗이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3) 품앗이 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

품앗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앗이 참여자를 위한 가족축제, 간담회나 보고회, 품강좌 등을 하지만 품앗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체계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게요 처음에 책 읽어주고 그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돌아가면서 책 읽어주고 나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복잡한 것 말고요 카레 짜장 이런 것만 들어 먹구요 다른 엄마들이 도와주니까요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밥을 안 먹었으면 친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품앗이 참여자 E)

“아직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부담을 주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품앗이예요 지금은 부담없이 맡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유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지 않았는데 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봐라 저런 것 해보면 좋겠다 참여 좀 해 달라 하는데.... 재미면 좋겠는데요 부담이잖아요 나는 요것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도 듣기 전에 가버리는 거죠 나는 고상하고 싶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당분간 정이 들고 일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 해요 미운 정 고운 정 들 때까지는 안 밀었으면 좋겠어요 부담도 안주고 오래된 그룹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밀면 좋겠어요 더 잘할 수 있게 내년엔 당장 동아리 회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부담이지, 누가 하겠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서로

얼굴도 익히고 알면 자연 될 것을....”(품앗이 참여자 D)

7) 품앗이사업의 사업운영 환경

(1)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

일회기 또는 수회기로 진행되는 센터의 다른 사업과 달리 품앗이 참여자들은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자녀돌봄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참여자 설문지)

(2) 사업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품앗이 및 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담당자는 품앗이 팀구성에서부터, 홍보, 품앗이 활동 지원, 장난감리사이클링 관리, 외부의 공동육아나눔터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연계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어려움은 품앗이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파악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장난감 대여나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어머니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 상시 근무하기가 벅참”(담당자 설문지)

“사업진행 가족품앗이 행정업무, 장난감 도서대여 업무, 이용자관리 등 업무량이 너무 많다”(담당자 설문지)

“담당자의 역량강화도 좋지만 과다한 업무량에 늘랐습니다. 품앗이 활동후 담당자를 만나는 시간이 늘었어서요”(참여자 설문지)

(3) 부모들의 상담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공동육아나눔터에 배치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엄마들은 자녀양육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양육방법의 옳고 그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이 시간을 정해서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설문지)

“유아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한분 계시면 좋겠어요 자주 오고 싶어도....., 오면 이끌어주실 것 아니에요 그 외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주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폼앗이 참여자 N)

(4)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가족폼앗이 참여자들은 자신의 폼앗이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 좀 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공익광고 등) 해주었으면 좋겠다”(참여자 설문지)

“자녀돌봄지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몇 명 엄마들이 아닌 천안의 모든 부모들이 알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참여자 설문지)

(5) 폼앗이 활동일지 기록에 대한 부담

활동계획서 작성이나 활동 후 일지 작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폼앗이 참여자들은 기록에 대한 부담없이 원할 때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해

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참여자 설문지)

“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은데 계획서랑 일지분담도 어려움.”(참여자 설문지)

(6) 이용가능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

공동육아나눔터는 폼앗이 활동 참여자 뿐 아니라, 부모들의 개별적인 육아 및 놀이공간, 육아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한 휴식공간, 장난감 이용공간 등으로도 이용된다. 나눔터의 공간활용 측면에서 문제점 및 요구를 살펴본 결과, 나눔터의 공간개방시간이 이른 오후이기에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12-1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시간이 짧다. 시간을 늘려 16시까지 이용하게 해줬으면.. 아이 낮잠자는 시간이랑 겹쳐 이용시간이 애매해진다”(참여자 설문지)

“최근엔 유치원 끝나고 오시는 분이 생겼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2시반, 4시반이 있는데, 4시에 끝나면 간식먹이고 와서 1시간 쯤 놀면 가야한다.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거죠. 정규반이 4시에 마칩니다. 활동시간이 빠듯함 5시에 마감을 해야 뒷정리하고 우리도 마무리할 수 있다.”(담당자 A)

(7) 상시 돌봄 수혜 시스템에 대한 요구

보육교사든 아이돌보미든 공동육아나눔터에 가면 누군가 항상 돌봄제공자가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맡길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개인사정이나 엄마의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설문지)

“건강가정지원센터내 상주 보육교사가 있어서 아이들과 놀이활동이 가능하고 그 시간에 엄마들도 자유로

〈표 6〉 사업단계별 가족품앗이 사업수행 및 공동육아나눔터 물리적 환경 실태

구분	사업 단계 및 영역	해결 과제	
가족품앗이 사업수행	사업목표수립 단계	품앗이 사업 방향 및 비전 수립	
	홍보 단계	사업수행에 대한 낮은 인지	
	오리엔테이션 단계	오리엔테이션의 품앗이 활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	
	품앗이팀 구성 단계	팀 조직화	- 팀구성으로 인한 업무 과중 - 다양한 요구 및 소통문제 - 팀구성 기준
		팀 구성원 확대	- 초등학생 돌봄 요구 - 맞벌이가정 요구 - 아버지 참여 요구
품앗이활동 지원 단계	- 품앗이 참여자의 주체적 활동역량 부족 - 기다림의 시간 필요		
공동육아 나눔터	물리적 환경	- 더 넓은 공간 - 접근성 - 놀이공간 요구	

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참여자 설문지)

8) 공동육아나눔터의 물리적 환경

① 좀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요구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센터 내에 공간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좁은 사무실로 인해 나눔터를 센터와 동일 건물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공간의 크기도 수십 평에서 1-2평으로 차이가 많다. 조사대상자들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면서 공간규모, 별도의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설문지)

“장소 협소하므로 활동 공간 별도로 있었으면 합니다”(참여자 설문지)

② 공동육아나눔터의 접근성

본 연구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47.6%가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눔터 이용자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 그리고 보다 여러 곳에 나눔터가 설치되어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공간이 생겨서 좋은데요 하려면 좀 더 가까운 곳에도 좀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멀어요”(참여자 설문지)

“이용 장소가 여러 군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설문지)

③ 실내 놀이공간으로서의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에 대한 요구

부모들은 이웃집에 줄 수 있는 소음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원하였으며, 실내외 놀이공간으로서의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아파트에서 뛰어 놀지 못하는데 육아실에서 뛰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아래층이 좁아져서요 여기(2층)를 활동방으로 하고 아래층은 그대로 자유로운 놀이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한테 설문을 했으면 좋았는데. 공동육아인데 자기들끼리 정하

는지, 이렇게 빨리 공사를 할지 몰랐어요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공사를 합니다.’ 의견을 적었으면 갑자기 겨울이니까, 친구가 없으면 아이가 안 놀아요 수업으로 인해서 오지만 수업 끝나도 그냥 가지 않고 놀고 싶어해요 장난감이 없어도 뛰어 노는 것 자체로 좋아해요”(폼앗이 참여자 H)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층간소음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모 또한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참여자 설문지)

이상의 사업실태 분석 결과를 가족폼앗이 사업 단계와 공동육아나눔터의 물리적 환경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3. 가족폼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운영 방안

1) 사업전 준비단계

사업전 준비단계에서 사업담당자를 비롯하여,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들이 폼앗이의 의미 및 가치, 폼앗이 사업의 목표 및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폼앗이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업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담당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단기 실적보다 궁극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삶을 공동체적 생활양식으로 전환시키는 근원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폼앗이 팀 구성 단계

(1) 구성주체에 따른 가족폼앗이 팀 특성 고려
가족폼앗이 팀 구성의 주체는 주민 또는 사업담당자 중 누구인가에 따라 폼앗이팀 구성원 내부의 결속력과 센터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담당자는 폼앗이 팀 구성주체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예상되는 문제가 폼앗이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결성되어 있는 폼앗이 또는 주민들이 새롭게 구성하는 폼앗이는 폼앗이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도와 결속력이 높은 강점이 있으나 센터와의 의사소통에는 낮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사업담당자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구성된 폼앗이팀은 팀구성을 하는데 요구되는 과도한 업무, 구성원의 갯수를 증가시키려는 실적위주의 사업진행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2) 대상자에 대한 고려

사업 초기 단계인 현재로서는 주로 영유아를 둔 비취업모가 가족폼앗이의 주 참여자가 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품을 교환하기보다는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 나아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가족친화마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생애 주기의 모든 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폼앗이사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폼앗이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특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지닌 요구를 폼앗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가정인 경우, 자녀가 낫가림 시기를 벗어나야 돌봄품의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가정의 폼앗이참여시간대 확장 요구, 초등학생자녀를 둔 가정의 방과후 돌봄 요구,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의 폼앗이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기 위한 새로운 폼앗이 활동 개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인지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폼앗이보다는 주말을 이용한 체험, 답사, 체육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폼앗이를 요구한다는 점, 경제적 빈곤층의 자녀돌봄 공백을 메꾸어 줄 사회적 육아방식-가정육아에 대비되는의 돌봄 폼앗이 등으로의 사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품앗이 사업이 좀 더 성숙된 다음 단계로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정이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가족품앗이를 통해 품앗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대상을 가족품앗이에 수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1차적인 과제는 이용시간의 연장과 인력충원이다. 현재 지역의 센터는 사정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의 자원봉사자,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인력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단시간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완적인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일 프로그램 등은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인력 충원은 물론, 중고등학생들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품앗이에 아버지들의 참여는 여전히 잔존하는 전통적 성역할이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장시간 근로의 직장문화 등으로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가족가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역할이 강조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참여 가족품앗이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퇴근 시간 이후로 조정하거나, 남성의 선호를 반영한 프로그램, 주말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의 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홍보 단계

홍보는 온,오프라인의 두가지 통로가 가능하다. 온라인상에는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발적 지역 품앗이가 결성되어 있다. 품앗이 활동이 체계화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 품앗이의 게시판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품앗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효과가 크다.

오프라인 상의 홍보는 대중적인 방법과 개별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중적인 방법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수막, 리플릿, 센터나 지자체의 소식지, 가능하다면 가족품앗이 신문 등을 무작위로 대량 배포하는 방법이다. 소아과 병원이나 약국 등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문이 잦은 장소에 관련 자료를 비치할 수 있겠다. 개별적인 방법은 좀 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화, 우편물 발송, 방문 등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부모 교육 참가 학부모, 주민센터 회의나 부녀회 등을 통한 설명회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직접적인 홍보는 아니지만 가족품앗이에 참여했던 부모들의 입소문은 가장 강력한 홍보 방법이다.

4) 오리엔테이션 단계

오리엔테이션은 참여자들에게 품앗이 사업의 목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시켜줌으로써 이후 원활한 품앗이 활동을 가능케 한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주민주도적 운영의 주제로 가족품앗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품앗이 의미 및 목적에 관한 내용, 가족품앗이 활동방식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가족품앗이 팀 명칭, 활동주체, 팀 규칙, 팀 리더 선정, 센터의 역할 및 경계 확인을 위해 센터의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규모 및 방식, 가족품앗이 활동 계획서 및 일지 작성방법, 그리고 센터는 품앗이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도록 한다. 그밖에 우수한 멘토 품앗이가 있다면 소개해주어 가족품앗이 활동을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품앗이 사업의 지원기관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한다.

5)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단계

(1) 단위 가족품앗이팀의 활동 지원

품앗이팀이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담당자의 품앗이활동 지원내용이나 수준은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품앗이 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자는 활동주체의 제시, 계획서 작성 지도, 육아품앗이 활동 프로그램 사례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품앗이팀의 역량이 높다고 판단될 때, 팀의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자들이 주체적인 요구충족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품앗이간 활동 지원

품앗이 활동 경력이나 성과에 있어 우수한 멘토 품앗이를 결성 초기 단계의 멘티 품앗이를 연결시켜줄 필요가 있다. 담당자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해 설명하고 개입하는 것보다, 멘토 품앗이의 실제적인 활동 경험과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멘토와 멘티 품앗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이후는 두 품앗이 팀이 자발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품앗이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품앗이강좌를 통해 훈련 받은 가족품앗이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을 위해 교육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의해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품앗이와 품앗이간 경계를 허물 수 있다. 교육품앗이나 교육이외의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족품앗이로 확대하는 것은 가족 품앗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센터라야 가능하다.

(3) 전체 품앗이 활동 지원

센터에 등록된 모든 품앗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5-6명 정도의 가족품앗이 활동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품앗이 참여자로서의 소속감, 새로운 가정생활문화의 선도적인 경험자라는 자아존중감, 품앗이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가족품앗이 사업 경력이 길지 않아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품앗이 축제, 캠프, 나눔장터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품앗이 팀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나 월례회,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나 연습한 음악연주, 공연 등을 전체 품앗이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가족품앗이 참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족품앗이 활동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에 관한 소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육아품앗이 활동 능력과 관련된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부모교육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나아가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녀교육에 관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휩쓸린다면 주민자치운동의 하나인 가족품앗이로 나아가기 어렵다. 부모의 기대나 대리만족의 차원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가장 우선적인 자녀교육의 잣대로 삼는 자녀중심적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품앗이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참여자들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가족품앗이는 자녀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가족품앗이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주민자치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족품앗이리더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밖에 다양한 종류의 공예, 만들기, 문화 예술 영역의 취미 교육 등은 다른 품앗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품앗이를 가능하게 하며,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가족품앗이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가족친화마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필요한 교육내용들이다.

6) 공동육아나눔터 물리적 환경 개선

첫째, 나눔터 공간은 적정 수준 규모의 크기가 산정될 필요가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의 의견에서는 좀 더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냉난방, 전기사용, 청소 등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나눔터를 거점 및 외부의 이원체제로 구축한다. 나눔터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이용에 편리하지만, 접근성과 높은 시설수준을 동시에 갖춘 나눔터를 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 내에 거점 공동육아나눔터와 거주지 인접한 곳에 외부 공동육아나눔터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거점 나눔터는 외부형 나눔터가 제공하지 못하는 좀 더 넓은 놀이 공간, 교육재료 및 육아정보 등을 구비하여 외부형 나눔터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실내 놀이공간은 공동육아나눔터에 요구되는 필수적 기능이다. 집합주거인 아파트 거주가 일반화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다른 집에 부담이나 폐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실내에서의 놀이는 매우 제약을 받는다. 또래의 아이들과 만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추가적인 활동 공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나눔터 이용자들의 공동식사, 가족과 함께 하는 요리 프로그램, 이유식만들기 등을

위한 조리공간, 물품교환을 위한 재사용가게, 청소년 자녀들의 취미활동, 부모들의 문화 예술활동 등이 가족품앗이 활동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거점 공동육아나눔터라면 동아리 활동공간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품앗이 및 나눔터 사업은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역공동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성과가 실증적으로 밝혀진 상태가 아니며,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23개 지역 센터의 경험도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역에서 품앗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결집해내는 기관의 역할이 아직 부족하고, 비공식적 조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해, 초기 지원의 필요성이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품앗이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사업추진단계별 효율,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센터의 사업담당자 및 품앗이 참여자들이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 실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업무역량,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품앗이 팀 구성은 사업담당자에게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앗이 참여자들이 자발적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팀 구성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품앗이팀과의 의사소통, 결속력 등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품앗이 및 나눔터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있었다. 초등학교, 보육시설이용자녀,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품앗이 참여

및 나눔터 이용을 원하고 있었으며, 아내들은 품앗이활동에 남편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셋째, 품앗이 참여자들의 품앗이 활동 역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의 참여자들은 품앗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며,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넷째, 품앗이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상담 및 상시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나눔터에 전문적인 보육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도움을 받기 원하며, 비용지불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자녀돌봄을 맡길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다섯째, 나눔터는 좀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요구,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실내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품앗이 및 나눔터 실태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사업단계별 운영전략은 사업 전 준비단계에서 사업담당자의 사업목표 및 비전 수립의 필요성, 품앗이 팀 구성단계에서 팀구성주체에 따른 품앗이팀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 다양한 참여 및 이용자에 대한 고려, 홍보단계에서 개별적 접촉에 의한 방법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확보를 통한 입소문 효과,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품앗이에 대한 이해, 활동방식에 대한 안내, 센터지원방식에 대한 소개 등을 내용으로 반드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품앗이활동 지원단계에서는 단위 가족품앗이 팀의 활동, 품앗이와 품앗이간 교육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전체 품앗이가 참여하는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담당자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품앗이 참여자를 위한 소극적인 부모교육, 적극적 부모교육 그리고 품앗이 리더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눔터의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거점나눔터와 외부나눔터의 이원체계 구축, 필수적 공간으로서 실내놀이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품앗이 사업 시작 전 준비단계에서 사업담당자를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에 의한 자발적 품앗이 활동, 함께 돕고 나누는 지역공동체 구축에 대한 꿈은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품앗이 팀 구성단계에서는 지역의 주민특성,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가족품앗이 팀 구성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품앗이 팀 구성주체가 주민인지 담당자인지에 따라, 그리고 팀 구성방식에 따라 품앗이 팀의 결속력, 해체가능성, 팀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주민에 의한 가족품앗이 팀 구성인 경우 팀의 내부 결속력은 높으나 사업담당자와의 소통이나 관여도는 낮아질 수 있다. 담당자에 의한 품앗이 팀 구성의 경우, 품앗이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견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는가에 따라 품앗이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내부 결속력도 달라질 수 있다. 품앗이 팀 구성단계에서 좀 더 다양한 집단의 품앗이 및 나눔터 참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품앗이 대상자 및 대상 가정의 가정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가족품앗이 활동 및 공동육이나눔터 이용 요구에 차이가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보육시설 이용 후 늦은 오후시간에 공동육이나눔터를 이용하려는 부모,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방과후 돌봄 등 다양한 대상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인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품앗이에 아버지들의 참여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능한 시간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제공하도록 한다. 많은 수의 아버지들이 품앗이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직장문화가 경직되어 있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아기 아버지, 젊은 신세대 아버지들이 품앗이와 품앗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 요일의 조정,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선별

등이 이루어지면 아내들을 통한 아버지들의 품앗이 참여 및 품앗이 교육 참여가 효과적으로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족품앗이 활동 프로그램 매뉴얼 또는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다.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경우 초기 품앗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흔히 담당자의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이는 같은 센터 내에서도 품앗이 팀의 활동능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팀에서 활동주제정하기, 계획서 작성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품앗이 작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가족품앗이 활동 프로그램 매뉴얼이나 사례집을 개발하여 전국 센터에 배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담당자는 참여자들에게 품앗이 활동을 재촉하지 않도록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지만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담당자는 재촉하지 말고, 품앗이 참여자들의 활동 빈도, 참여자들 사이의 유대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다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거점 공동육아나눔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내·외부의 물리적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집과 가까운 곳에 많은 수의 나눔터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 나눔터에서 부족할 수 있는 기능을 거점공간에서 보완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거점 나눔터는 특히 실내놀이공간 및 놀이기구를 확보하여 공동주거생활로 인해 생기는 자녀들의 주택내 놀이활동의 제약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이상 제시된 운영모델은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사업담당자가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 효율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에도 영향을 받는다. 진흥원에서 지원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매뉴얼을 개발, 배포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20개 센터의 사업 담당자들은 가족품앗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매뉴얼이 개발되어 가족품앗이 사업의 목표와 과제가 정확히 파악되고, 사업 단계별로 효과적 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상자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족품앗이 참여자들을 위한 소극적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품앗이리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영주(2009).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6, 77-104.
- 2) 김정희(2000).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1), 95-129.
- 3) 김주희(1991).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서울 : 집문당.
- 4) 동운진(2008). 어린이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인식조사.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윤수중(2010). 농촌사회제도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 6)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7) 정병호(1994). 공동육아 운동론.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서울 : 또하나의 문화.
- 8) 차성란(2010). 주민주도적인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지, 14(4), 77-100.
- 9) ____ (2011).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방안-살기좋은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23-42.
- 10) Mauss, Marcel(1990).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New York: W. W. Norton.
- 11) 국립국어원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900600>)
- 12) 두산동아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jsessionid=9A5C121BCA050C6E5877A9588BA2A1EC?entryId=74e9000bc53d4f59a0a8ac72cf890af7&query=center#NounD>)
- 13) Bjorck_Akesson, Eva Brodin, Hane(1991). Toy Libraries and Lekotek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Handicap Research Group Report No. 11.
- 14)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 돌봄네트워크 구축(공동육아나눔터)시범사업 실적보고.
- 15)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6)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공동육아나눔터 : 설치와 운영을 위한 매뉴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투 고 일 : 2012년 3월 20일
- 심 사 일 : 2012년 4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5월 25일